



김민재, AFC 국제선수상 수상...손흥민 이어 韓 두 번째

한국 축구의 간판 수비수 김민재(27·바이에른 뮌헨)가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어워즈에서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수상했다. 한국 선수가 이 상을 받은 것은 김민재가 두 번째다. 앞서 손흥민(토트넘)이 2015년과 2017년, 2019년 세 차례 수상했다. 사진은 17일 오후 경기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경기에서 6대0으로 승리한 대한민국 김민재가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제1회 동구청장배 태권도 대회 개최

동호인·학생 등 1500여 명 참여...스피드 발차기 등 경쟁



동구는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제1회 동구청장배 태권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구체육회가 주관하고 동구태권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선수, 학부모, 대회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개최 선언을 시작으로 임택 동구청장의 대회사와 선수대표 선서로 대회의 열기가 고조된 가운데 공인 품새·스피드 발차기 등 다양한 태권도 경기가 펼쳐지며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는 무도 정신과 스포츠 정신

이 함께 어우러져 자라나는 청소년의 체력 증진과 인격 수양 모두에 이로운 운동이다"면서 "올해 첫 대회를 시작으로 민족 고구 무술 태권도의 매력을 보다 많은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시작된 2023년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는 동구 생활체육 동호인 최대 축제인 구민 건강 증진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축구, 배드민턴 등 총 18개 종목의 대회가 동구 주요 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김도기 기자

전국장애인체전 '론볼'·'보치아' 눈길

동계스포츠 컬링과 유사...전략·집중력 필요

나주시 론볼·해남서 보치아 열띤 경쟁

전국장애인체전에서 동계 스포츠 '컬링'과 유사한 종목이 있어 눈길을 끈다. 나주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론볼'과, 해남 우슬동백체육관과 우슬체육관에서 열리는 '보치아'다.

'론볼'과 '보치아'는 1987년 제7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처음 시범종목으로 도입됐으며, 1988년 제8회 서울 패럴림픽을 계기로 정식 종목으로 인정받았다.

두 종목은 자신의 볼을 표적구에 가장 가까이 위치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스포츠다.

표적이 고정돼 점수를 획득하는 '컬링'과는 다르게 볼을 부딪쳐 표적구를 원하는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 뛰어난 전략과 고도의 집중력, 탁월한 실행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기다.

'론볼'은 '잔디에서 공을 굴린다'라는 의미를 지닌 스포츠로 40m×40m의 평평한 잔디나 인조잔디 경

기장에서 1~7개의 '링크'로 나뉘며 경기를 하는 야외 스포츠다.

볼은 직경 116~131mm, 최대 1.58kg를 초과하지 않는 무게로 편심을 가지고 있어 볼을 굴리면 처음에는 직선으로 가다가 3/5정도의 거리부터 휘어져 포물선을 그리며 나아간다. '잭'이라 불리는 작은 표적구에 가까이 위치시켜 점수를 획득한다.

11월 3일부터 8일까지 나주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론볼경기장에서 306명의 선수가 열띤 경쟁을 선보인다. 전남도 소속으로는 2022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황동기 선수를 포함 24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보치아'는 광택 콘크리트, 목재, 천연 또는 합성 고무와 같은 재질의 12.5m×6m의 평평한 코트를 6개의 투구 구역으로 나뉘며 한 쪽 방향으로 볼을 굴리는 실내 스포츠다.

볼은 규정상 흰색, 적색, 청색, 3개



전국장애인체전 종목 론볼.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의 색상으로 무게 275g±12g과 둘레 270mm±8mm로 정하고 있다. 흰색 표적구를 먼저 굴린 후 적색, 청색의 볼을 굴려 최종적으로 표적구에 가까이 위치시키는 선수가 점수를 획득한다.

11월 2일부터 8일까지 해남 우슬동백체육관과 우슬체육관에서 108명의 선수가 우승을 위한 열망을 표

출한다. 전남도 소속으로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동메달을 획득한 유원종 선수를 포함해 11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오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분산 개최된다. /김 호 기자

무안고 핸드볼 김다민, 경남개발공사 신인 드래프트 지명

2라운드 지명...창단 2년 만에 성과 '특목'



무안고등학교는 "핸드볼팀 김다민 선수가 한국핸드볼연맹이 주최한 '23-24 핸드볼 F리그, 신인 드래프트'를 통과해 내년부터 실업팀 선수로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0월 26일 한국핸드볼연맹

은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남녀 14개 실업팀단이 참여한 가운데 신인 드래프트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남녀 총 33명의 선수가 실업팀의 지명을 받았다.

무안고 김다민 선수는 2라운드 8순위로 경남개발공사의 지명을 받

았다. 원소집이 라이트업을 받고 있는 김다민 선수는 '2022. 청소년 대표' 후보로 활약했고, '2023 핸드볼 코리아 전국중·고 선수권대회'에서 무안고핸드볼팀을 3위로 올려놓은 선수이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경남개발공사 지명을 받은 김다민 선수는 "저를 뽑은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대현 감독은 "여고부 핸드볼팀이 전남에 창단한 지 2년 만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다. 우리 선수들이 노력과 열정으로 이런 성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희룡 교장은 "감독, 코치, 선수뿐 아니라 학교 교직원, 학부모, 동문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주신 결과"라며 "앞으로 적극 지원해 핸드볼부를 전국적인 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호남대, 군장병과 함께하는 'e스포츠대회'...14일 결승

호남대학교는 '31사단 군 장병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대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대회는 2일까지 온라인 예선전을 거쳐 14일 호남대학교 IT 스퀘어 특설무대에서 대망의 결승라운드가 펼쳐진다.

현재 33개팀이 참가 신청했으며 결선 라운드는 에란젤, 미라마, 사녹, 비렌다, 에란젤 랭의 순으로 전체 5라운드로 진행된다.

대회 우승팀에는 상금 200만원이 부상으로 수여되며 2등 100만원, 3위, 4위, 5위까지 시상금이 주어진다. 결선라운드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공식 채널로 생중계된다.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www.homae.co.kr

羅海

해라수산 66번 중매인

자연산 빨낙지 전문

싱싱하고!! 저렴하게!!

빨낙지 · 홍어 · 전복 · 하모(갯장어)
곱창김 · 매생이 · 계절수산물

장흥수협대리위판장

전복

● 13~15미 31,000	● 9~10미 38,000
● 11~12미 34,000	● 8~9미 40,000

홍산홍어

수입 (小박스) 50,000	국산 (小박스) 70,000
(中박스) 70,000	(中박스) 130,000

갯장어 (하모화)

손질 (1KG) 25,000

회&샤브 선택 ※택배비 5000원 별도

66번중매인 해라수산

빨낙지·홍어·전복·하모·문어

전국·택배·버스·발송

010-2421-3246

장흥군 화진면 해양낚시길 135

5 농협 302, 2421, 3246, 71 (예금주 권해라)